

황우석(전 대전지법 총무과 직원1) 1차 구술

1. 구술자: 황우석
2. 면담자: 김상철
3. 촬영자: 이대희
4. 구술일자: 2011년 6월 29일
5. 구술장소: 대전 중구 대전풀뿌리시민센터 회의실
6. 구술분량: 06분 14초 / 일부 공개
7. 주요내용: 1977년 대전지법 판사로 부임한 당시 일화

구술자 : 제대하고 기회가 돼서 여기 칠십(70)년도 삼(3)월서부터 대전지방법원에 근무를 시작했는데, 정확한 이게 그 월(月) 그런 건 기억이 안 나는데 칠십칠(77)년도 아마 가을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노무현 판사님이 인제 새로 여기 부임을 하셔갖고²⁾. 아 그때는 뭐 이렇게 판사실에 대부분이 그 관례로 돼있다고 할까, 변호사들이 이렇게 인제 인사를, 새로 오신 분들한테는 이렇게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뭐 (판사가) 일(1)년에 한분도 오시고 어떤 때는 두 분도 오시고 그랬는데 그렇게 와도 지방으로 또 이렇게 가시는 분도 있고.

그 노 판사님이 오셨는데 아마 내 기억으로는 그때 좀 나이가 제일 많으신 변호사님들이 네 분인가 그렇게 다섯 분인가 있었는데 그중에 한분이, 그 원로 변호사가 방에 인사하러 아마 (왔어요). 그 양반이 부지런해갖고 맨 먼저 오신다고. 그게 가만히 보면은, 판사들 부임했다 하면은. 근데 역시 그 양반이 처음에 인사를 하러 와서 (노무현 판사) 그 방에 들린 거 같은데. 아마 다른 분들은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데 노 판사님은 아마 그게 좀 어떻게 마음에 걸렸는지 우리 방, 우리 사무실로 아래 층으로 내려와서 나를 찾아서 ‘내가 이게 그 변호사한테 인사를 받고 보니까 그게 좀 그래서 내가 오히려 원로 몇 분한테는 찾아가는 게 좋을 거 같아서 나를 좀 안내해줄 수 있나’ 그래서 내가 그때는 다 법원 앞에 근방에 계시는 분들이라 모시고 사무실을 네 군데가 그렇게 들린 거 같애. 그런데 판사님이 변호사를 찾아서 인사하러 오니까 다들 뭐 이렇게 그냥

1) 구술자는 1970년부터 1997년까지 대전지법 총무과에서 근무했다.

2) 노무현 대통령은 사법연수원 연수를 마치고 1977년 9월부터 1978년 4월까지 대전지법 판사로 재직했다.

깜짝 놀라면서 ‘아니, 내가 조금 있으면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그러나
고’ 그러면서 그렇게 좀. 그래서 하여튼 그때서부터 아주 이분은 좀 다
른 분들하고 그 생각하는 게 좀 틀리구나. 그러니까 변호사 그 뭐, 그때
야 노 판사님 계실 때야 변호사가 몇 명이야. 한 십오(15)명 미만인 거
같애. 근데 원로 변호사들이 한 네 명인가, 한 다섯 명인가 그렇게 그분
들은 좀 나이가 많으셨다고. 그러니까 그런 분이 방에 와서, 변호사들이
다 방에 다녀가는데. 아이 노 판사님은 그게 좀 미안해서 하여튼 내 방으
로 내려와, 우리 사무실로 내려와 갖고 ‘좀 안내를 해 달라’ 그래서 내
가 그렇게 변호사 사무실로 가서 그렇게.

그러니까 그 원로 변호사님들이 깜짝 놀랬지. ‘아이 안 그래도 내가 지
금 들어갈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오셨다고.’ 그래서 난 처음 봤어. 내가
그때 ‘아 이런 분도 있구나.’ 내가 한 번도 그런 분을 못 봤어. 그런데
다 가지는 않아도 ‘이렇게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되느냐’ 고
그래서 내가 그때는 이름 다 외우고 있으니깐 여기 몇 분이라고. ‘아니
사무실 다 알죠?’ 뭐 다 근방에 있고 그러니까 찾아가서(웃음) 그냥 인
사를 먼저 드리러 올라가니까 그렇게 깜짝 놀래시더라고. 인제 그게 좀
원가 댄 분들하고는 좀 생각하시는 게 틀리는구나. 그러니까 인제 당신이
뭐 필요하면은 꼭 우리 사무실로 날 찾아오시더라고. 그래갖고 어디 좀
같이 가자고. ‘아이, 가야죠’ 그러면 ‘아이 이 전화 있으니깐 불르라
고. 그럼 내가 올라가는데 뭐 하러 내려오시냐고’ (그러면) ‘아이, 내
가 필요하니까 그럴지 뭐’ 그러면서 그렇게 시내도 한번 그렇게 다니시
고 그랬고.

■ 구술자 주요이력

1941. 전남 영광 출생

1959. 영광농업고등학교 졸업

1970. - 1997. 대전지법 총무과 근무

1970년부터 1997년까지 30년 가까이 대전지법 총무과에서 근무했다. 사법연수원
생활을 마치고 1977년 9월 대전지법으로 부임한 판사 노무현을 만났다. 공군 하

사관 복무 경력으로 대전지법 직원들의 예비군훈련 일정을 챙기기도 했는데 이 때 당시 노무현 판사의 개인적인 면모를 접할 수 있었다. 2011년 노 대통령 2주기 추모웹진 ‘Rohmember’ 에 ‘노무현 대통령의 판사시절 이야기’ 를 기고하기도 했다.